

하루를 시작하며



김문정 시인

모스크바에는 눈이 내리고 내 스카프는 아직 얇다. 후배 따라 #엄마흔자 배낭여행 중이다. 후배라지만 우린 동갑내기다. 아무래도 청춘은 아닌데 아무래도 청춘이다. #떠날수있을때 떠나는 거라고, 알파벳을 급히 익히고 #생존러시아어 몇 마디로 길을 나서다니, 대단하다. 한글로 바꿔 쓴 행선지는 한 음절씩 곱씹어야 입에 붙는다. 어쩌다 SNS로 길 위에 있다. 거기는 이미 겨울이 깊다. 물이물어 기차를 탄다. 며칠째 #시베리아횡단 열차로 달린다. 끝없는 바이칼호수를 지난다. 십자수나 카드놀이 하는 승객

모스크바에는 눈이 내리고

들과 함께다. 살짝 옛날 러시아 군인의 전투식량은 신기하고 이웃과 나눠 먹는 비빔밥은 재밌다. 좌석마다 핸드폰 배터리 무한충전이 된다고 마냥 신나하니 낭만여행자의 #슬기로운기차 생활이다. 혼자 조용히 다니자 나섰지만 자꾸 사람들이 만나진다고 기분 좋게 투덜댄다. 아직 어둡한 새벽인데 문득 하차다. 낯선 곳에서 택시 타기는 얼마나 막막할까. 제대로 통하긴 한 걸까. 세상 반가운 말은 알아듣는 말이며 다행히 "살았습시다!" 한다. 실로 웅장하고 적응력도 깊다.
싼 숙소일지언정, 대중 자른 생수병에 꽂힌 장미가 탐스럽다. 방 창문 앞이 무려 강가라고 강물을 품에 안은 듯 푸근해 한다. 짐을 풀고 동네 슈퍼에 간다. #장바구니물가는 눈이 내린다. #블라디보스톡에서 고추장 샀어야 하는데 #아쉬운대로칠리를 샀노라고. 전통시장에서 털모자까지

사 쓰니 꼭 그냥 거기 아깝다. 일주일 룸메이트에게 선선히 눈썹 타투를 받는다. 어린 룸메는 전업하느라 심지어 오늘 자격증을 뒀다. 꽤 긴 시간 얼굴을 맡길 만큼 그녀는 거침없다. 아마도 나는 '노 핑크'였을 것이다. 생경한 러시아어 철자 아래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옮겨 적은 빼곡한 네 쪽짜리 메모가 어느덧 이제 필요 없을 만큼이라고, 이 정도는 겁이라고 너스레를 떠난다. '레닌'을 읽을 수 있어서, '보인'이더니 답답한 다시 까먹는이러다. 지하철에서 버스킹으로 들은 비발디도 감동이며 역마다 공짜인 #대한민국지하철화장실최고라고 엄지척이다. #마린스키극장에서 '백조의 호수'를 본다. 체홉과 톨스토이, 푸시킨, 역사박물관, 미술관에도 들린다. 아끼고 아끼고 기계가 쓴다. 톨스토이의 펜글씨를 보니 울컥해서 책이랑 작은 수첩도

사설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한시가 급하다

제주지역 하수처리 용량은 이미 과부하에 걸린지 오래됐습니다. 그만큼 하수처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깁니다. 도내 하수처리장 8곳 가운데 증설된 곳은 성산 1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을 넘어서면서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주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본격 추진돼 다행입니다.
제주도는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번 용역 발주는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익적인 첫 걸음으로 이 용역은 수행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20년 1월부터 8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2025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886억원을 투입해 기존 13만t에서 22만t으로 증설하게 됩니다. 하수처리 공정을 완전 지하화하고,

시상부는 공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 완료되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거쳐 2021년 9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제주도내 하수처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수처리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시도 때도 없이 바다로 방류되기 일쑤입니다. 일부 지역의 해녀들은 하수처리장으로 바다가 오염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오염으로 해산물 등 소득원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녀들은 심지어 썩은 냄새로 구토와 피부 트러블을 호소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하수처리장 증설은 한시가 급합니다. 도두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1차산업 총체적 위기, 무대책이 대책인가

제주를 대표하는 돼지고기 가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큰 일입니다. 양돈농가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양돈농가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마한 가집니다. 닭고기 산지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양돈농가는 난방비 부담 때문에 겨울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이달 현재 돼지고기 산지가격은 100kg 기준 35만4000원으로 지난달(37만7000원)에 비해 6.0% 하락했습니다. 소비자가격도 부위별로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20% 가량 떨어졌습니다. 마리당 생산단가(37만원)에 크게 밀리면서 적정 출하시기가 됐는데도 출하하지 못한 사육두수가 늘면서 추가 비용만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양돈농가도 말이 아닙니다. 지난 18일 기준 닭고기 1kg 산지가격은 1000원으로 생산비(1237원)에도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지난주의

경우 무려 662원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도내 닭고기 산지가격은 지난달 1234원이고, 지난해 11월에는 1381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9.0% 전년 동기 대비 27.6% 각각 하락한 겁니다.
물론 양돈농가나 양돈농가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힘으로 각광받던 제주관광역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업계에서 판어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라고 털어놓겠습니까. 이렇다 판어 양식장이 밀려나 출도산 사태까지 우려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갈매도 제갈을 받지 못해 난립입니다. 최근 경매시장에서 이뤄진 최저가가 상자당(5kg) 1300~1500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가공용으로 출하하는 것보다도 못하다고 하니 말이 됩니까. 제주 1차산업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는데도 제주도정은 도대체 뭘 하는지 답답합니다.

열린마당

2019 애월읍 농·수·축산 박람회 막을 내리며



박은경 제주시 애월읍주민자치위원장

2019 애월읍 농·수·축산 박람회가 세월오름광장에서 애월읍주민자치위원회 주최로 3일 간(11. 22~ 24) 일정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애월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수·축산물을 홍보하고 농가들의 농작물도 판매하는 목적으로 7개월 간장시간의 준비를 했다.
올해는 장소변경에 따른 넓은 공간으로 관광객과 도민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 과제였다.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는 수차례 열렸고 급기야는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각자의 의견과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시간들이 이어졌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완벽하게 준비

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했고, 뜻하지 않게 모슬포에서 열리는 방아축제와 겹치게 돼 격정이 많았지만 성대하게 박람회를 시작했다.
세월오름의 유명세 덕과 계절적으로 아름다운 역세의 풍광으로 관광객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별을 보기위해 끝없이 방문했다. 온 좋게 날씨가 좋고, 건조한 속에 새벽오름에 화재사고가 발생할까봐 노심초사하며 당직을 섰던 것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새벽에 출근해 당직자들과 교대하며 사고 없이 마무리 됐기에 무엇보다도 보람있고 뿌듯했다.
이번에 얻은 교훈으로는 첫째 우리도 행정의 큰 도움 없이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자신감, 둘째는 박람회 경험의 노하우가 쌓이게 됐고, 셋째 우리 애월읍주민자치위원들 간 협동심과 애월읍민으로서 애월읍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행태가 돋보인 점이다.
우리는 내년에도 더 알차고 제주에서 으뜸가는 애월읍 농·수·축산 박람회를 만들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용암수 출시 맞서는 삼다수... '물의 전쟁'

2개 제품 잇따라 나와

○...제주삼다수가 국내 생수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2개의 용암수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며 '물의 전쟁'의 근원지로 돌변.
오리온은 26일 고급 미네랄워터 '오리온 제주용암수'를 내놓았고, 앞서 하루 전날엔 제이크리에이션이 국내 최초로 제주용암수를 이용한 생수 '벨리블리 미네랄 500ml 제주'를 출시.
앞서 제주삼다수는 용암 다변화와 가정의 배송 편의를 위한 '삼다수엡'을 운영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에 나서 제주는 때아닌 수투(水鬪) 삼국지가 전개. 조상윤기자

리사업, 제주바다 청정지킴이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진행.
제주시 관계자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강사를 초빙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며,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고대모기자

수장고 전문 인력 보강돼야

○...지난 6월 제주시 환경면 저지리에 개관한 문화예술공공수장고에 미술품 보존연구실을 갖추고 26일부터 제주도립미술관 야외 조각품 보존처리 작업.
제주도는 미술품 보존연구실 설치로 그동안 보존처리를 위해 미술품을 타시도로 보내야 했던 운송절차와 관리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
하지만 미술품 보존연구실이 생긴 일은 고무적이거나 인력은 제자리여서 향후 보존처리 분야 전문 인력이 보강돼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전선희기자

기간제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제주시가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눈길.
이번 교육은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재활용품 요일별배출제 도우미, 공공근로, 장애인·노인일자

부고

한석부(부성수산) 아버지 청주한공 만성(향년 88세)께서 서기 2019년 11월 25일 오후 9시 37분경 노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11월 28일(목)
발인일사: 2019년 11월 29일(금)
발인장소: 대정읍 모슬포 동성수산
장 차: 대정읍 모슬포 공동묘지

- 부인 강화근(敬)
아들 한석부, 마느리 강옥성, 양성관, 강영희, 한석민, 강영심, 한석운, 이경희, 한연옥, 사 위 정명철, 한순옥, 이 훈

연락처: 한석부 010-3691-6565, 양성관 010-7498-7222, 한석민 010-3699-8189, 한석운 010-4295-0047, 한연옥 010-5594-7044, 한순옥 010-3927-2149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남평문공 장인(향년 89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자문을 빌려인사를 올립니다.

- 부인 고기옥, 아들 문재중, 마느리 양춘희, 재흥 김재자, 문정순, 사 위 고상구, 정렬, 박득규, 정심, 송광수, 정신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폼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안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릿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010-3693-2000, 010-2696-9876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액무료 매월최대 400,000 지급

내선전기 실무자 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대상 - 모집 조기마감될수있음
실업자 / 구직자 / 매출 1억5천 미만 사업자
교육기간: 1월 개강예정 - 7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등
*필요서류: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주)취업 7월 23일 종료과정 21명중 20명 취업 미취업자 취업 협의중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jejujewon.com
본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하귀농협장례식장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405 (노형에서 10분 거리)



- 독립적인 5개의 고공객 분향실
독립적인 상주휴게실 및 편의시설
하귀농협직영 합리적인 장례비용
동시주차 500여대의 넓은 주차장
타 장례식장 대비 저렴한 식비 (6찬제공)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직영점 운영
노형에서 10분거리 (대중교통이용가능)

24시간 무/료/상/담/실/시 24시간/대기
T.798-8800